

# 도롱뇽이 사람 못살게 하면?

## 극단 새벽, 천성산 소재로 한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 공연

수미산 꼭대기 고원 늪지 뒤편에 살고 있던 도롱뇽들이 9월 7일부터 부산의 한 연극 무대에 올라 지을 스님과 관객을 만났다.

극단 새벽이 '도롱뇽 소송'을 소재로 만든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에 등장하는 도롱뇽들은 인간과 도롱뇽의 입장을 바꿔 놓은 관점에서 얘기를 시작한다. 도롱뇽이 서식지 확보를 위해 지하터널을 계획하고 그 지하터널이 인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잔잔한 노래와 함께 진행되는 연극 형식의 이 연극은 극적인 '감동'과 환경영향공 통보고서, 도롱뇽 소송의 법적 상황 등 '사실' 사이를 오가며 도롱뇽소송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되짚어보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들은...'이라는 제목에서 '그들'은 법적 판결을 내린 재판부, 고속

철공단 관계자, 천성산대책위 관계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롱뇽 소송 기각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 물음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물음이다.

이번 연극은 도롱뇽소송을 극화했다는 점 외에도 연극 자체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사건제작후원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도입해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발자, 스님, 일반시민 등이 제작비를 후원해 연극을 만드는 등 참여가 때문이다. 연극에 도입한 독립영

화 운동과 같은 사전제작후원제를 통해 천성산 살리기 운동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이끌어내겠다는 극단 새벽의 의지가 담긴 시도다. 9월 3일, 공연을 앞두고 시연회를 열어 천성산대책위 관계자와 일반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도롱뇽 소송의 과정과 연극 제작을 둘러싼 의견을 나누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출을 맡은 이동민씨는 "5월 지을 스님을 뵈고 연극 제작을 결심하기 까지 고민이 많았다. 도롱뇽 소송 기각이 곧 천성산 운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연극제작을 통해 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인간과 도롱뇽 입장 바꿔 이야기 전개**  
**'사전제작 후원제' 독특한 방식 도입**  
**9월 7일~10월 1일...관람후 토론회**

찾아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운동가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명이 개인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하여 그들은...'에 참가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천성산 기행이나 '공간 초록'에서의 토론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밝혔다.

그래서 다른 연극 제작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기 공연으로 기획했다. 10월 1일까지 남포동에 위치한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일주일에 5회(목, 금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 공연된다.

"환경운동에 대한 하나의 입장 전달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생의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이성민 연출자의 말처럼 연극 '그리하여 그들은...'은 생명에 생명을 살리는 큰 순환을 일깨우며 막을 내린다.

'공간 초록' 개원 행사 이후 영덕 토굴에서 머물다 연극 공연 관람을 위해 부산에 온 지을 스님은 "도롱뇽소송 기각 이후 많이 힘들었다. 그것은 패소의 절망이 아니라 그 과정에 드러난 사회의 여러 부정적 단면 때문이었다. 연극을 통해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245-591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interview** 개교 100주년 금정중학교 현익채 신임교장

## “새로운 100년 준비 민족의 동량 양성”



“부덕한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스님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과 마음을 모아 100년 전통의 맥을 잇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조계종립 부산 금정중학교 신임 교장으로 취임한 현익채(56·사진) 교장. 현 교장은 “부산에서 한 세기를 넘어 전통을 이어오는 중학교는 금정중학교가 유일하다”

현 교장은 금정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낙후된 학교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휴게실, 강당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학사를 옮기든지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학교법인,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달 발간되는 600페이지 분량의 <금정 100년사> 최종마무리에도 진력하고 있다. 등반, 봉사, 학생들의 금정중학교의 새로운 100년에

**낙후 시설 확충 최우선 과제**  
**'금정 100년사' 발간에 진력**  
**등반·마라톤대회 등 준비**

금정중학교는 1906년 6월 '불타의 자비정신'으로서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국민을 양성하고자 중등교육을 실시한다'는 건학이념으로 범어사 금어암에서 문을 열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3·1운동과 43년 조선여학회사건으로 강제 폐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동안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스님을 비롯해 1만 8852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 교장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교장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다”며 “아이들의 심성을 맑히는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금정중학교는 100주년 기념일인 10월 31년 6개월 동안 금정중학교에 몸담아왔고 87년부터 교법사로 활동해온

## 공 굴리며 마음 나뉘요

### 대불청 회장배 첫 전국 볼링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는 볼링대회를 통해 지역을 초월한 도반애를 다졌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거리가 불링핀처럼 외르크 무너지는 볼링대회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 이하 대불청)는 9월 2일 부산 장전동 현대볼링장에서 제1회 대한불교청년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부산지구 청년회원을 비롯 서울지구, 경북지구, 경남지구, 조계사청년회 등 5개 지구에서 150여명이 참석

해 도반애를 다졌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는 가족의 손을 잡고 참석한 회원들과 평소 볼링 모임으로 실력을 다져온 팀들의 활약으로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다.

50여 명이 출전한 개인전에서는 경북지구 포항 죽림사 지회의 임종락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회별로 팀을 나눠 진행된 단체전에서는 부산지구 기장지회가 우승했다.

## “배움과 가르침을 둘 아니게”

### 부산 교사불자 '청림회' 창립15돌

부산 교사불자 청림회(회장 조은영)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9월 1일 남산동 문수원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및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리회 지도부사 무비스님은 법화경 강의에 앞서 “여러분은 지식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들인 만큼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정법으로 전법을 한다면 세상의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말했다.

창립회는 불법으로 아이들을 교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발원하며 15년 전 1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했다.

특히 단체전, 개인전 1, 2, 3위에 주어진 시상금 중 10퍼센트를 대불청 중앙에서 실시중인 북한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김익석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해 훈훈함을 더했다.

대회를 주관한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평소 볼링 모임을 가지며 심신을 다져오던 청년회원들이 이제 볼링을 매개로 다른 지역 청년들과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의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예불문, 천수경, 유마경, 법화경 등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 회원 수는 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교사가 아니어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법회를 개방하고 있다.

이날 창립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은영 대남초등학교 교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도반들이 있어 두렵지는 않다”며 “청림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남북 수해 희생자 위령제**  
**부산불교평화연대**

부산불교평화연대(상임대표 황정은)는 9월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남북 큰물피해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평화연대는 부산 황정사 신도들이 모은 1억원 상당의 옷 1만 200여 점을 북한으로 전달하고 9월 말까지 수재의 연금 1천만 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황정 스님은 “우리 개개인의 힘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은아 기자

**중 영화제 관계자 범어사 방문**  
**다도체험 등 한국불교 경험**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영화관리국 동강국장 겸 중국영화제 관계자들이 9월 5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한국을 찾은 것은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문화 교류를 위해 9월 1일부터 6일 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중국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범어사 연수국장 해수 스님의 안내를 받아 조계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대웅전과 팔상전, 나한전 등을 둘러 본 중국방문단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차를 마시며 범어사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날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이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따뜻해지길 발원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범어사를 찾은 경험이 여러분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 周 易 講 義

###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부처님 법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마는 부처님 법을 중생제도 하기에 알맞은 방편인 신비한 오행비법이 바로 강의속에 있으니 선지식의 스님들 앞에 감(敢)히 머리조아려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뜻있는 불자님들도 이곳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짝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明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9월 23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필석居士
- ※ 특전 : 수강료 일시불, 매번 강의 무료. 스님은 필기도구 및 교재무료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범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재단법인  
선학원

寶明寺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